

단체도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본회의에서는 과학기술부 권상원 원자력안전심의관의 축사와 김선빈 원자력안전과장의 「2005년도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방향」이 발표되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운원 안전규제부장의 「원자력 안전규제 현황 분석」 등이 발표되었다.

기술분과회의는 ▲제1분과 원자로안전해석 ▲제2분과 중대사고 평가 ▲제3분과 지진 및 구조건전성 ▲제4분과 계통평가 ▲제5분과 기계해석 ▲제6분과 금속재료 ▲제7분과 계측제어 및 인간공학 ▲제8분과 방사선안전 및 폐기물관리 ▲제9분과 품질보증 등 총 9개의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가동원전 계속운전에 대비한 기계설비 안전성 증진 방안」 등 총 70여 편의 분과별 의제가 발표되었으며 분과별 주요 안전현안과 규제방향에 대하여 심도 깊고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현재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장기가동 원전의 계속운전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정부 및

산·학·연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다.

1995년 제1회 회의에 이어 이번에 10회를 맞은 신원기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리더쉽이라는 것은 권위에 의한 강요나 공권력보다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규제자가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며 수준높은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을 때, 효과적으로 원자력의 안전성확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라며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기관의 리더쉽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보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 중에는 각종 정책과 제도로 반영되어 우리나라 원자력안전규제 체계를 공고히 하게 된 성공적인 사례도 많음을 지적하며 “금번 회의에서도 귀중하고 열띤 논의를 펼쳐 원자력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됨은 물론, 원자력 안전성 증진을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원사 동정

한국수력원자력(주)

방사선보건연구원

-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열려 -



한국수력원자력(주) 방사선보건연구원(원장 김중순)과 동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은 방사선작업종사자



의 업무상질병에 대한 현행 과학기술부 고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의 후원으로 5월 19일(목)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방사선보건연구원 측은 “저선량 피폭에서의 암 발생 여부는 불명확하며 그 원인은 매우 복잡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발생한 암이 방사선작업에 기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판정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도입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발생한 암의 방사선 인과도를 평

가하도록 개발된 업무상질병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자들의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산업안전공단,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비롯한 관련 업계, 의료계의 지정토의가 이루어졌으며 공청회 참석자들이 참여한 활발한 전체토의가 이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주) 방사선보건연구원과 동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측은 동일한 내용으로 산업의학계를 대상으로 한 심포지움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제시된 업무상평가방법이 노동부의 지침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대학교병원

최신 Gamma Camera 추가 도입

조선대학교병원(원장 홍순표)은 방사성동위원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해부학적 생리학적인 상태를 진단, 평가하는 최첨단 의료기기인 Gamma Camera를 새롭게 도입하여 환자 치료에 임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한 Gamma Camera는 뼈의 전이 상태 및 골절상태, 폐의 기능, 신장의 기능평가, 간담도계

기능, 뇌혈류 질환 및 뇌기능, 심혈관, 심근질환 및 기능상태, 간암 조직, 종양, 연부조직, 갑상선 및 부갑상선 크기 및 모양, 임파선기능 상태 등에 대해 기관별, 부위별로 3차원적인 단층영상을 얻어 병변을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최첨단의 의료 장비이다.

- 협회 명예기자 강명원 -

서울대학교의과대학

핵의학교실, IAEA 핵의학·분자영상협력센터 지정



서울의대 핵의학교실(주임교수 정준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전 세계 유일의 ‘핵의학과 분자영상’ 협력센터로 지정돼 5월 24일(화) 서울대병원

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IAEA는 원자력개발과 응용활동을 10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마다 한 곳씩 세계적으로 10개 기관을 협력센터로 지정하고 있으며, 핵의학·분자영상 분야에선 서울의대 핵의학교실이 지정됐다.

핵의학과 이명철 교수는 2002년부터 세계 핵의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정준기 교수는 아시아지역 핵의학협력체 의장을 맡고 있다. 정준기 교수는 “IAEA와 공동으로 새로운 핵의학 기술과 기기, 의약품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세계 핵의학 발달과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5. 5. 25-

◎ 상호변경

주식회사 부경사 → 주식회사 부경에스엠

이번에 “주식회사 부경사”가 창립 제25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상호변경일자 : 2005년 5월 1일
- 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부경에스엠
- 대표 전화 : (02)516-7331
- F A X : (02)516-5123
- 대표 e-mail : info@bookyungsm.co.kr

◎ 주소이전

테크밸리(주)

- 변경된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구 상대원1동 513-15 썬텍시티 401호
- 대표 전화 : (031)777-1256
- F A X : (031)777-1308

◎ 주소이전

현대원자력(주)

- 변경된주소 : 강남구 역삼2동 722-4 부강B/D 3층
- 대표 전화 : (02)3452-1646
- F A X : (02)3452-1671